

##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주향 · 정민자  
아동 · 가정복지학과

### <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감소와 중단을 돕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방법을 시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추세에 대응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하여 현장 실무자들이나 상담원들이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The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Program for family violence assailant

Sung Ju Hyang · Jung Min Ja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 <Abstract>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a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program for both a family violence offender and his/her family to help offenders decrease or stop family violence in the current situation of increasing family violence. The program attempts a synthetic approach for both a family violence offender and his/her family.

The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program for family violence offenders is composed

of ten stages and this study have relevance for presentation of date or a guide for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counselling program for violence offenders.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동시에 폭력의 대물림의 고리를 차단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서 제2의 가정폭력의 예방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효과적 갈등해결 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울 수 있고, 자녀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가정폭력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폭력 피해자를 위한 관심과 연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가해자에 관한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배우자학대 치료프로그램에서는 학대받는 여성을 쉼터로 피신시키고 ‘구조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부를 격리시켜서 치료하였고, 학대관계에서 영원히 분리하는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를 돕는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개인의 재화에 치중했다.

문헌에서도 역시, 사회구조, 즉 권력이 가정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는 가정 아래 이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이 폭력관계를 종식시키길 원하고 있으며 결혼을 끝내는 것 외에는 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가정하고, 별거와 쉼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폭력만 사라지면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위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났다(Geller, 1979). 여성 대부분은 쉼터에 단기간 동안만 머무르다가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했다(Walker, 1979, LaBell, 1979).

이는 대부분의 배우자간 폭력문제가 관계상 혹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폭력관계에 있는 많은 여성들 스스로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감소와 중단을 돕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시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추세에 대응하여 개입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 2. 기존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기존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AMEND, DCCP, DAIP, WMDAP, Learning to live without violence 등이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해자 프로그램은 최근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광주 여성의 전화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개별 치료를 겸한 집단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6개월에서 1년을 단위로 하여 인지행동이론과 여성주의적 관점, 또는 이 두 관점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들의 약 반수만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치료 성과는 60-70% 정도로 밝혀졌다.<sup>1)</sup>

우선 이들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덴버의 AMEND는 주로 가해자의 분노와 고통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주된 내용은 책임감 인정, 타임아웃 학습, 남성 성역할 훈련, 긴장 완화 훈련, 인지적 재구조화, 분노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Neidig의 DCCP(Domestic Conflict Containment Program)는 체계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토대를 두고 부부관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된 내용은 책임감 인정, 변화수용 계약, 타임아웃 교육, 폭력의 순화과정 학습, 분노 관리, 갈등 관리,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질투심과 신뢰감 학습, 성역할과 성문화 학습, 문제 해결 기술, 주장훈련 등으로 되어 있다.

미네소타주 들루스의 DAIP(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남성의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폭력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AIP는 26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남성의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8가지 방식, 즉, 위협, 정서적 학대, 고립, 과소평가, 부인, 비난하기, 자녀 이용, 남성특권 이용, 경제적 학대, 강요와 협박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구체적 학대 행위의 검토, 비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검토 및 훈련과정으로 되어 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WMDAP(The Wider Men's Domestic Abuse Program)은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인지 행동적, 심리 역동적, 교육적)에 근거를 두고 학습된 행동으로서 폭력의 교정과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9가지 유형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집단 소개, 8가지 프로그램 원칙, 남성들의 법칙, 학대가정, 학대유형, 분노나 스트레스의 상승 조짐, 책임감 계획, 폭력행위, 중간 집단평가, 개인적 책무성 계획, 자기 돌봄, 자기주장 훈련, 자조집단 형성, 집단평가 등의 14가지 행동지침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추천하고 있다.

Sonkin & Durphy가 고안한 Learning to Live Without Violence 프로그램은 주로 인지 행동 요법에 중점을 두고 학대의 개념 및 종류, 가해자의 특성 및 학대관련 요인, 학대의 결과 및 폭력의 순환, 범죄로서의 폭력, 군대환경과 폭력요인, 분노에 대한 인식 및 관리, 알코올 및 약물과 폭력과의 관계, 질투, 비언어적 의사소통 훈련, 별거 및 이혼과정 및 결과 인식, 차후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시된 광주여성의 전화 가해자 프로그램은 개별 면담 6주 과정과 집단치료 12주 과정을 병행한 형태로 총 20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남성폭력에 대한 이해, 남성의 권력과 통제, 음주와 폭력의 관계, 분노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갈등

1) 박미은,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광주여성의 전화, 10-24, 1998

해결 방법,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이들 가해자 프로그램 중에서 DAIP, WMDAP, 광주여성의 전화에서 개발된 가해자 프로그램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DAIP 모델은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여성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도록 유도하며 기존의 성역할 체제에 대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유교전통이 여전히 우세한 우리 사회에서 구타남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WMDAP는 이미 3천 명 이상의 가해자 남성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남성의 폭력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WMDAP는 주로 치료적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어서 DAIP와 차별성을 지니며 이성에 관계에 있는 가해자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 여성의 전화 모델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모델은 앞의 두 모델과 차이점을 지니며 비교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sup>2)</sup>

## II. 연구의 설계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인한 개인 및 가족관계 손상을 치료하며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담과 교육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가정폭력 상황의 가해자·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손상 회복을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대인관계기술과 관계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래의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표 1>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과 내용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초기 면접	프로그램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면접(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li> <li>· 프로그램 원칙 검토 및 프로그램 목표 논의</li> <li>·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 받음</li> <li>· 자기-진술 작업표 작성</li> <li>· 타임-아웃의 중요성 논의 및 계약서 완성</li> </ul>
1	폭력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폭력주기 논의</li> <li>· 가정폭력 관련 비디오 시청 및 작업</li> <li>· 「분노일지」 과제</li> </ul>

2) 공미혜, 한국의 가부장적 테러리즘-아내구타자 교육 프로그램, 도서출판 하우, 1999, pp 87-89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2	분노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확인</li> <li>· 감정고조 A-B-C 이론 설명</li> <li>· 「분노일지 I」의 과제에 ABC모델 적용</li> <li>· 「분노조절 자기분석」 과제</li> </ul>
3	스트레스와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검토 및 긍정적 피드백</li> <li>· 스트레스 측정법과 스트레스와 폭력의 매개변수 논의</li> <li>· 스트레스 관리 훈련 소개</li> <li>· 이완훈련 소개</li> <li>· 「분노일지 I」와 이완훈련을 과제로 부과</li> </ul>
4	MBTI를 통한 나와 가족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검토 및 확인하기</li> <li>· MBTI에 대한 소개</li> <li>· 검사 실시</li> <li>· 성격유형 소개</li> <li>· 가족성원의 장·단점 작성하기를 과제로 부과</li> </ul>
5	권력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검토 및 확인하기</li> <li>· 권력과 통제에 대한 설명</li> <li>· 권력과 통제 관련 개인적, 사회적 요인 토론</li> </ul>
6	알코올과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주간의 생활 점검하기</li> <li>· 알코올과 폭력에 대한 설명</li> <li>· 가해자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논의</li> <li>· 알코올과 약물 없이 지내기 작업(과제)</li> </ul>
7	갈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검토 및 확인하기</li> <li>· 가족갈등의 근원을 논의</li> <li>· 갈등에 접근하기 소개</li> <li>· 갈등방향, 갈등전략, 갈등고조를 논의</li> <li>· 갈등조정에 대한 논의(과제)</li> </ul>
8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검토 및 확인하기</li> <li>· 의사소통의 원칙 소개</li> <li>· 의사소통 기술 소개</li> <li>· 「의사소통 실행과 평가」 실행(과제)</li> </ul>
교육 종료	교육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검토 및 확인하기</li> <li>· 고립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논의</li> <li>· 「지지체계 평가」 실행</li> <li>· 프로그램 원칙과 내용 검토</li> <li>· 폭력이 계속 발생시의 결과 논의</li> <li>· 「성과 유지하기」 양식 완성</li> </ul>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치료를 위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기본골격이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문제와 원인을 가진 가족을 그 치료단위로 보고 보다 포괄적인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해자 폭력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로 나뉘어진다.

- 첫째,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배우자, 자녀,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여 자신이 행한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도록 한다.
- 둘째, 가해자가 폭력과 관련된 다른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변화시키도록 돕는다.
- 셋째,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인정하여 이를 변화시키고 가족내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 넷째, 지속적인 상담교육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한다.

### III. 프로그램 내용

#### 1. 초기 면접 및 평가

치료의 첫 회기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도록 돕는다.

##### 1) 초기 면접

가정폭력 가해자의 배경과 폭력의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면접(Intake Interview)을 실시한다. 초기면접은 가해자가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모든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프로그램의 참여 이유가 본인들의 폭력행동 때문이고,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면접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함께 면접한다. 함께 면접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부 모두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 나타나는 치료자와 한 배우자간의 결탁 현상이 줄어들고, 치료 단위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또한 치료자가 부부의 비밀보장문제에 휘말릴 염려가 없고, 의심을 막고 면접동안 폭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부부 중 한사람이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심문할 위험을 배제한다.

##### 2) 프로그램 원칙

프로그램 원칙은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신념 또는 특징이다. 가족들에게 이 원칙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지시켜야 한다.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납득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원칙을 설명하면서 가해자는 폭력의 개념

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사고할 수 있게 된다.

### 3) 자기기술 수준 평가

가정폭력 부부의 행동과 기술의 수준을 알면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기술(self-description)」 작업표는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특성을 살피고 그 특성이 치료 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 4) 타임-아웃

치료를 시작한 초기 몇 주동안 부부의 언쟁과 갈등이 심해졌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시기에 갈등이 대두되고 민감한 사안이 계속 언급되는데 반해 당사자는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가 치료를 계속하면 차츰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고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 타임-아웃(Time-Out)방법을 제대로 활용해서 폭력주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① 분노가 끓어오르는 신호를 찾아라
- ② 신체적 폭력의 '방아쇠'를 확인하라
- ③ 타임-아웃 신호를 정하라.
- ④ 타임-아웃동안 각자 갈 곳을 정해 두어라
- ⑤ 타임-아웃 시간
- ⑥ 타임-아웃 동안 지킬 규칙을 정하라

## 2. 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을 일삼는 부부가 폭력행동을 고치려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회기에서는 폭력 사건의 「폭력주기」를 조사할 것이다.

폭력에는 일정한 과정 또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게 돕는다. 본 단계의 핵심은 폭력의 과정을 이해하고 폭력 고조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갈등조정 단계를 밝히는 데 있다.

### 1) 3단계 폭력주기

Lenore Walker(1979)는 다음과 같이 3단계 폭력주기를 언급하였다. Walker의 3단계 폭력주기는 구타 관계를 관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 ① 1단계 - 긴장의 형성 :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이는 시기이다. 보통 스트레스원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 속으로 확대하고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 ② 2단계 - 돌발적인 폭력 : 보통 1단계는 점차 격렬한 학대 상황으로 전개된다. 쌓였던 긴장이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폭력 상황 직전에 순간적으로 느낀다. 두 사람 모두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성을 잃게 된다.

- ③ 3단계 - 후회 : 폭력상황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직후에 상대적으로 평온의 시간이 찾아온다. 1단계에서 형성되었던 긴장은 사라진다. 폭력의 강도가 심할수록 더욱 심한 후회감을 경험한다. 후회는 용서를 구하는 노력으로 표현된다.

### 3. 분노조절

가해자는 여러 차례 분노조절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분노일지를 작성하고, 수많은 사례를 검토한 후에 야만 비로소 가해자는 자기 자신이 분노조절의 주체임을 인식한다. 그런 이후에 성공적인 분노조절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낙관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비로소 분노조절 모델을 폭력주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인식하게 된다.

#### 1) A-B-C 이론

Ellis(1961)는 모든 분노는 어떤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일련의 사고 후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감정고조 A-B-C 이론으로 설명했다. A는 사건이나 흥분을 유발하는 일을, B는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인지 또는 신념을, C는 결과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A가 C를 유발하는 것으로, 즉 사건의 발생이 감정과 직결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입단계는 바로 B이다. 즉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그 사건에 대한 신념은 중요하다. Ellis는 B단계를 ‘혼잣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 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사고 과정이다. 혼잣말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긴장이 고조되면, 분열적이고 적응하기 힘든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2) 인지적 왜곡과 비합리적인 신념

David Buns(1980)는 자기-대화의 과정을 ‘반사적 생각’이라고 하였다. 보통 이러한 생각은 아무런 의도나 인식 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흔히 분노를 동반하는 반사적인 생각 또는 인지왜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 ① 명명하기(Labeling) : 대단히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분류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특성 즉 꼬리표를 달고 있는 대상으로 비하한다.
- ② 마음 읽기(Mind-reading) :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안다고 추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에게 이러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가 편한 대로 해석하려 한다.
- ③ 점치기(fortune-telling) :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으므로 영원히 계속 될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예를 들면, “내 아내는 바뀌지 않을 거야” 또는 “내가 바뀌더라도 아내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 소용이 없을 거야”
- ④ 과장하기(magnification) : 어떤 사건에 대해 단지 조금 불편하거나 약간 거슬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이상으로 극도로 화를 내게 되지는 않는다. ‘악몽이다’, ‘참을 수



없다', '나를 미치게 한다' 등은 모두 감정을 고조시키는 과장하기이다

- ⑤ '반드시'라는 말(should statement) : 단지 선호하는 것(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을 흔히 명령 또는 요구(내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로 해석할 때가 있다.

일단 가해자가 분노 고조에 관한 이론과 분노를 야기하는 인지적 왜곡과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노출되면, 분노조절 기술을 학습할 준비가 된 것이다. 가해자가 「분노일지 I」에 기록했던 분노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것을 조절하는 기술을 지도한다.

「분노일지 I」를 철저히 논의하고 연구하고 나면, 가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적인 분노-유발 사고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분노일지를 관찰하면 분노 생각의 강도와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해자는 사실상 분노 경험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고한다. 자동생각을 통해 본인 스스로 분노를 유발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자기조절의 도구가 된다.

#### 4.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분노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 학대는 주로 부부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시기에 일어난다. 스트레스 측정으로 폭력 사건의 강도는 장담할 수 없지만 빈도는 장담할 수 있다. 본 회기에서는 스트레스의 측정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 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알아본다. 가해자가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 1) 스트레스 측정

이 척도는 Homes와 Rach(1967)에 의해 개발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으며 적응해야 하는 생활변화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어떤 변화든 에너지와 자원소모를 요구한다.

스트레스 측정의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2) 스트레스와 폭력의 매개변수

Straus(1980a)는 스트레스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폭력적이지 않았다. 폭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중 한가지에 불과하다. 신체적 질병, 알코올 중독, 우울증, 정신질환, 도피 등 다양한 반응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패턴과 스트레스 정도의 상관관계도 증명되었다. 어떤 매개 요인이나 소인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폭력을 유발하기에 소인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자극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폭력을 휘두르기 쉽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아래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아동기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2. 폭력을 휘두르기 쉽게 만드는 스트레스 정도와 소인을 인식한다.
3. 위협하기 때문에 폭력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4. 소인과 심한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을 인식한다.

### 3) 스트레스 관리훈련

다음에 설명할 스트레스관리 훈련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스트레스 증상을 확인하고, 그러한 증상에 원인을 제공한 스트레스원을 파악하고, 대처기술을 익히고, 스트레스 관리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계획을 실행한다.

#### ① 증상 확인

인간의 신체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스트레스 증상은 신체적(두통, 가슴 조임, 가빠지는 호흡 등), 심리적(우울증, 과민, 무감정 등), 또는 행동적(수면장애, 폭음, 불안한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고, 뚜렷하게 외부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은 용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이 단계에서 자기-노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② 스트레스원 확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고유한 스트레스 증상을 확인하고, 그러한 스트레스 증상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임을 이해한 후에는, 스트레스원 또는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스트레스원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말로 정의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 ③ 계획 및 기술 습득

상대적으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명확한 말로 스트레스원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원과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필요는 없다.

#### ④ 계획의 실행

실행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문제를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용어로 파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불가능해 보인다.
2. 문제를 충분히 작은 부분으로 나누지 않았다.
3.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4.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충분한 시간동안 변화 과정에 매달리지 않았다.
5.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얻기 위해,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향상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5. MBTI를 통한 나와 가족의 이해

이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이 아니고,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선천적인 경향이 무엇이며, 나의 성격적인 잠재력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심리학자 Jung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타고난 선천적인 마음의 경향이 있으며 타고난 인식과 판단의 경향이 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발달,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계에서 철쭉과 백합을 볼 때도 각각의 고유한 맛과 향을 지녔듯이 인간 개개인에게도 타고난 그 사람 고유의 빛깔과 향과 맛이 있다. 자기의 고유한 맛과 향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수용의 시작이며, 자기 수용의 능력은 곧 타인 수용과 연결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만큼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과를 사과고, 복숭아는 복숭아로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쉬워도 인간관계에서 남이 나와 다르다는 관점 즉 나의 빛깔과 다른 빛깔을 가졌을 때 불편해 한다. 나와 같은 관점이 되거나 적어도 나와 비슷한 관점이기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느끼고 불편해 한다.(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부하-상사관계 등)

본 회기의 목적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경향 및 내면의 빛깔, 향기, 마음의 모습을 MBTI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즉 나의 선천적인 성격적 경향과 잠재력을 알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용하며, 받아들이는데 있는 것이다. 즉 나는 남과 다르며, 남 또한 나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터득하고 나누자는 것이다. 나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참사람의 시작이요,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함은 타인을 수용하는 바탕인 것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성장의 토대가 된다. 이것은 남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성립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건강하고 성숙하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겨주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오해는 각자가 타고난 선호경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체험하고 이해하면 해결될 것이 많다. 본 회기에서는 MBTI 검사에 대한 소개와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가족 구성원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을 마련한다.

## 6. 권력과 통제 연습하기

1984년, Duluth의 구타당한 여성을 위한 쉼터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에서 참가했던 여성들의 집단면접에 의거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남성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많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비판하였다. 폭력을 남성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으로 보는 이론, 배우자의 행위, 생각, 감정을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의도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이론, 왜 여성은 자신을 구타하는 남성과 함께 지내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Duluth의 쉼터에서 제공한 30개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200명이 넘는 여성들은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Power and Control Wheel)”를

고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신을 구타한 남성과 살고 있는 여성들이 경험한 행동이 묘사되어 있다. 이 수레바퀴는 폭력이 우발적인 확대형태이거나 갑작스런 분노나 좌절, 고통스런 감정의 순환적인 폭발이라기보다는 행동유형의 한 부부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배우자를 구타할 때 감정의 폭발에 의해 통제 받거나 아니면 통제 불능의 상태를 경험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동은 결국 자동화되어 가지만 거의 예외 없이 가해자의 의도가 잡히고 있다. 예를 들면, 남성은 배우자를 잡고 흔들고 때리기 전에 험담을 하고 창녀라고 욕을 한다. 남성이 “자신이 먼저 배우자를 대상화하고 난 후 때릴 참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배우자에게 욕을 하여 대상화하는 것은 자신이 창조한 대상을 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그의 생애와 경험에 너무나 배어 있어서 마치 자기에게 두 번째 본성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통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배관계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계질서는 중립적인 것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 열등성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를 보편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메시지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배에 두 명의 선장이 있을 수 없다”, “신이 남성을 먼저 만든 것은 여성을 통제하라는 의미이다”, “이 애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책임이 있다” 등과 같은 속어를 절대적인 진리로 고수하려고 한다.

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의식구조는 이러한 체계 속의 경험과 그 체계를 작동하는 모든 힘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런 오랜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성은 현재 자기 행동의 파괴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본 회기에서는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통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통제에 관한 논의 도중 가족구성원들이 가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방안도 마련해 둔다.

## 7. 알코올과 폭력

술과 다른 약물은 뇌의 판단력을 책임지는 부분을 손상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술과 다른 약물 복용은 폭력을 더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폭력을 범하고자 하는 남성들은 직감적으로 그런 영향 하에 저지르는 행위가 더 ‘용서받기’ 쉬운 줄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약물복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폭력을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신호를 차단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약물복용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부적절한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여 자제력을 둔화시키고 결국 폭행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이유든 간에 그들이 상습의 일부로 술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확인하고 알아야 한다.

많은 경우 가해자는 그들이 술을 마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통제불능이었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갖는 통제불능의 느낌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자신의 행동통제와 책임문제를 토론한다. 어떤 구성원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이 가해자에게 치료자는 그들이 그렇게 통제불능이었다면 왜 배우자에게 더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지 물어보아도 좋다. 이것은 그들이 무슨 약물을 복용했든 간에 어떤 시점에서 충분한 통제력을 지녔음을 이해시키도록 돕는다. 당신이 이런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이 술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와 그들의 신호를 확인하는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그들은 폭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술과 기타 약물의 사용은 가정 내 폭력을 야기하지 않으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2. 그들이 음주나 다른 약물복용을 시작할지 모른다고 말해주는 개인적인 신호 목록 작성하기
3. 그들의 술이나 다른 약물복용의 개인적인 결과를 이해하기
4. 가정 내 폭력을 억제하려는 그들 목표의 일부로 술이나 다른 약물 없이 지내기 위한 계획 발전시키기

## 8. 갈등관리

본 회기에서는 갈등의 잠재적인 근원과 부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어, 부부간의 갈등은 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가능한 반응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 1) 가족갈등의 근원

가족스트레스와 갈등의 소지는 문제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존재한다. 가해자가 그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발전적인 대체방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해자는 갈등에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의견의 차이를 없애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부들이 대부분의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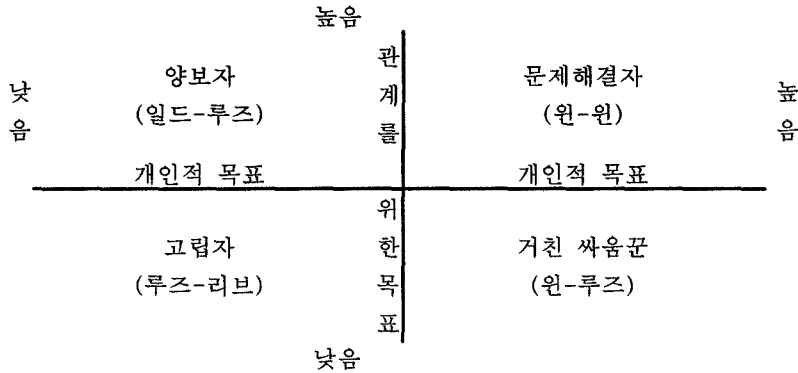
### 2) 갈등에 대한 접근방법

갈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향(orientation)과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은 갈등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은 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갈등의 방향, 전략, 그리고 갈등의 전개 과정을 인지하는 것은 가해자가 갈등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갈등의 방향

Mouton과 Blaker(1971)는 관계에 대한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득에 비중을 둘 것인가의 관점에서 갈등의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이득 또는 관계의 유지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lt;그림 1&gt; 갈등조정 스타일



- ▶ **문제 해결자** : 개인의 목표, 관계를 위한 목표 모두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은 두 사람 모두 이길 수 있고 타협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접근방법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며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다.
- ▶ **거친 싸움꾼** :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다. 타협함이 없이 호전적이고 독자적인 유형으로 갈등을 처리한다. 이러한 유형은 공격적이며 윈-루즈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 ▶ **양보자** : 자신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관계를 위한 것에만 투자하는 사람이다. 주된 관심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는 기꺼이 포기한다. 일드-루즈(yield-lose)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 ▶ **고립자** : 개인의 목표 혹은 관계를 위한 목표, 그 어느 쪽에도 관심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갈등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을 떠나 버리거나 그 상황을 피해 버리는 방법을 택한다. 루즈-리브(lose-leave) 방법을 사용한다.

## ② 갈등전술

갈등을 고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부가 이용하는 갈등전술을 검토하는 것이다.

- ▶ **윈-루즈(win-lose) 전략**은 오로지 이기기 위해 타협을 거절한다. '나는 이기고 너는 진다'가 목표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전략이 정당화될 수 있다. '윈-루즈'방법이 갖는 문제는 특정 라운드는 이길 수는 있으나 싸움 전체는 진다는 것이다.
- ▶ **루즈-루즈(lose-lose) 전술**은 '내가 이기지 못하면 너도 이길 수 없다'는 태도이다.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면 상대방이 유리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극적/공격적 행동을 동원한다.
- ▶ **윈-윈(win-win) 접근방식**은 가장 바람직한 전술이다. 최대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협과 협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복수를 하기 위해 갈등을 지속시킬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내 방식'과 '당신 방식'의 대결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초점을 맞춘다.

### ③ 갈등의 고조

갈등고조 또는 갈등이 견잡을 수 없게 되면서 일어나는 단계 변화를 인식하면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용어집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3) 갈등의 조정

일단 부부가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며 굳이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갈등의 방향, 갈등전술, 그리고 갈등고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면, 갈등을 조정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는 원칙은 「갈등 조정원칙들」의 내용과 같다.

## 9.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할 경우 부부간의 상호 작용에서 폭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사소통에서 이처럼 헛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학습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 1) 의사소통 원칙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2.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모든 메시지에는 내용과 감정이 담겨 있다.
4. 비언어적인 신호가 언어적인 내용 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 2) 의사소통 기술

부부가 의사소통의 원칙을 이해하였다면 경청, 확인, 감정대화, 긍정적 표현, 부정적 감정 표현, 그리고 요청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준비가 된 것이다. 부부를 의사소통의 전문가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폭력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부족한데 연유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 ① 경청 : 열심히 듣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배려이다. 문제 있는 대부분의 부부는 경청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다.
  - 바라보기 : 신체적으로 대화자를 향하고 바라본다
  - 인 정 : 상대의 말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 격 려 : 대화자가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권한다.
  - 확 인 : 오해를 줄이기 위해 보충의 정보를 요청한다.

- 해 석 :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확인(Validation) : 경청이 아내와 아내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확인은 아내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확인은 이야기하는 사람 그 자체와 그 사람의 행동 또는 의견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확인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 ③ 감정대화(Feeling-Talk)/자기표현 : 내면의 감정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알리는 기술이다.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 표현함으로써 갈등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한다.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 ‘나’를 주어로 한다.
  - 질문보다는 서술형이어야 한다.
  - 현재형으로 즉시 말해야 한다.
  - ‘말하고-묻는’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④ 긍정적인 표현 : 모든 가해자가 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배우자의 반응을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치료자는 가해자에게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을 준다. 이것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모델링이 될 수 있다. 치료자는 또한 가해자에게 ‘배우자의 긍정적인 노력에 대해 어떻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했느냐’고 일관되게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유도해낼 수 있다.
- ⑤ 부정적인 감정 표현 :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흔히 겪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갈등영역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정적인 내용을 직접 표현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혼란과 오해와 토라짐을 야기할 것이냐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예상하고, 이러한 감정은 감출 수 없으며,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 간접적인 표현(비언어적인)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부부가 인식하여야 한다.
- ⑥ 요청하기 :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달한다.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거의 메시지와 상충될 경우에 한에서만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시 추가적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감정”은 요청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어감, 어조, 목소리 크기 등)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협조 또는 마지못한 협조 또는 불만을 유발하면서, 동일한 행동(요청한 내용)을 상대방이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0. 교육 종결

프로그램의 종결은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복습하고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다. 이때 치료가 끝난 이후에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지지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고립과 사회적 지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가정폭력의 역동 속에서 지지망의 부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지망 평가」 작업표를 이용해서 가해자 가족의 지지망을 평가하여 본다.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가족만으로 이 모든 지지기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이 가족 구성원이 외부체계와 교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더 이상 나쁘게 비춰지지 않게 된다.

### 2) 프로그램 검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긍정적인 성취와 잠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앞서 다루었던 프로그램 내용을 복습한다.
- 가해자가 얻은 성과를 확고하게 다진다.
-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예상하고 검토한다.
- 폭력 없는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진다.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가해자가 분노와 폭력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겪게 될 개인적 결과이다. 이러한 불행한 결과에 대해 가해자가 인식하는 것은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해자는 심각한 폭력사건이 그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① 법적 조치 : 가정폭력도 범죄로써 경찰이 적극 개입하며, 피해자 및 가족이나 이웃이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 ② 결혼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를 통제하고 지키기 위해 폭력이 자주 동원되지만 오히려 아내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갖는다.
- ③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자주 거론된 바대로 아동은 부모의 폭력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폭력으로 아동은 소심하고 반항적이 되고 성인이 되면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④ 자존감 :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학대행동을 부끄러워한다.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방어적인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이다.
- ⑤ 직장경력 : 공무원 또는 직장인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직장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 회기의 어조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야 한다. 차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평가를 점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배우자간 폭력문제를 위한 상담서비스 및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및 실천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지엽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확인된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연구는 아직 부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되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부부 모두를 개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인 Neidig의 Domestic Conflict Containment Program을 수정·보완하여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향후 상담소 및 일선 기관에서 활용될 것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상담 기간 및 진행에 있어서 많은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대상 가족의 특성과 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속도와 깊이에 융통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정도나 폭력 후의 가족의 상황(아내가 처가로 갔다거나 쉼터에 있는 경우)에 따라 각 회기마다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할지 부부나 가해자만 참여할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 초기에는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이 진행된 후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각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상담소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의 경우 대부분 범원으로부터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집행의 강제성은 어느 정도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강제성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셋째, 각 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가해자와 가족들에게 잘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검찰, 법원, 교육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등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다루어, 차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이 가족을 분리시키는데 국가 제도가 앞장섰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던 미국의 결점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과 같이 가족전체를 여러 측면에서 지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쪽 배우자, 부부 그리고 자녀와 부모까지도 포함한 친가족을 포괄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문제의 사정, 개입 그리고 치료효과의 유지를 위해 기타 전문분야를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다학문적인 접근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미혜(1999), 한국의 가부장적 테러리즘-아내구타자 교육 프로그램, 도서출판 하우
- 광주가정폭력상담소(1999),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연구보고서
- 광주여성의 전화(1998),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사단법인 광주여성의 전화
- 권진숙 율김(2001), 가족갈등조정 프로그램, 나눔의 집
- 권진숙(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준(2000),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아내구타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 저(1998),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춘영(2000),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아내구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0), 가정폭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인력의 역할 모형 개발
- 보건복지부(2000), 가정폭력 예방과 개입에 관한 국제 WORKSHOP
- 손영주(1997),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Satir 가족치료모델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1998), “아내학대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도시 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아내구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신영화(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선필(2000),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결혼과 결혼지속과정에 관한 생애과정적 사례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 공미혜 역(2001), 가정폭력 가해자교육 프로그램-남성 가해자를 위한 Duluth 모델, 도서출판 하우
- 윤양소(1999), 부부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훈(1997), 가족지향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개인성장과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령(2000), 한국 아내학대자의 학대행동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1997),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족복지, 한국가정복지정책세미나
- 한국가족관계학회(1999), 가정폭력 실태와 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 학술대회
-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1997),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학술대회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9),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교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한국여성상담센터(1999),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한국여성상담센터
- 한국여성상담센터(1999), 가정폭력 상담을 위한 워크샵-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적 접근, 한국여성상담센터
- 한국여성상담센터(1999),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한국여성상담센터
- 한국여성상담센터(2000),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한국여성상담센터
- 한국여성상담센터(2000), 가정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가 교육자료집, 한국여성상담센터
- 한국여성상담센터(2001),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한국여성상담센터
- 허남순, 윤현숙, 조성숙, 구훈모 옮김(2000), 가족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나눔의 집
- D. G. Dutton & J. J. Browning(1988), "Concern for Power, Fear of Intimacy and Aversive Stimuli for Wife Assault,"
- D. Goldstein & A Rosenbaum(1985),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ly Violent Men," *Family Relations*, 34
- D. J Sonkin, D. Martin, & L. E Walker(1985), *The Male Batterer : A Treatment Approach*, Springer
- G. L. Martin(1986),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Vol, 4, Resources for Christian Counseling Series
- G. T. Hotaling, D. Finkelhor, J. T. Kirkpatrick, & M A. Straus(Eds)(1988),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 Sage
- H. Chang(1996), *An Analysis of Attrition in Batterers' Counseling*,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J. Flanzer(1993), "Alcohol and Other Drugs are Key Causal Agents of Violence" Sage,
- J. L. Edleson & M. P Brygger(1986), "Gender Differences in Reporting of Battering Incidences," *Family Relations*, 35
- L. K. Hamburger & J. E. Hastings(1989), *Psychopathology Differences Between Batterers and Non-batterers: Psychosocial Modifiers*, Paper presentes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A
- M. Bograd(1990),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An Introduction," in K. Yllo & M. Bograd(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Sage
- R H. Beasley(1991), *The Male Batterer: A look at His Psychological Self*.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Graduate College
- R. L. Hampton, T. P. Gullota, G R. Adams, E. H. Potter III, & R. P. Weissberg(Eds.)(1993),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Treatment*, Sage Publications
- Z C. Eisikovists, J. L. Edleson, E. Guttman, & M. Sela-Amitt(1991), "Cognitive Styles and Socialized Attitudes of Men Who Batter: Where Should We Intervene?," *Family Relation*, 40